

'전주 책 축제' 9월 14~16일 개최

28일까지 행사 명칭 공모 · 시민 선호도 조사로 '전주의 책' 선정 · 시민 아이디어 수렴도

전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전주만의 독서문화 축제를 만든다.

시는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018 전주 책 축제' 행사의 명칭을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2018 전주 책 축제'는 시민들의 독서생활화, 지역 출판산업 육성,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행사로 오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주 한벽문화관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축제 행사명 공모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가칭)전주 독서

대전 홈페이지(www.jbook.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명칭에 대해서는 △누구나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우며 △독서 축제의 행사 특징을 잘 살리고 △전주의 고유성을 반영한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행사 실무기획단은 행사명 공모 부분에 대해 우수작을 선정해 10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수여할 예정이며 동일 명칭이 접수될 경우 먼저 도착한 응모작만 수상작으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2018 전주의 책' 선정을 위해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시민 선호도 조사도 실시한다.

'한 도시 한 책 읽기'는 아동·성인 등 대상으로 도시마다 각각 한 권의 책을 선정해 모든 시민이 함께 읽고 소통 및 공유하는 범시민 독서 운동의 일환으로 전주의 책을 선정해 독서 인구를 확대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각 유관 기관별로 추천받은 도서 중 선정된 50권에 대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 후 가칭)2018

전주 독서대전 실무기획단에서 심사를 거쳐 2018 전주의 책을 결정한다.

선정된 도서는 2018 전주 책 축제에서 △작가와 만남 △전시회 △시민 토론 △동아리 운영 등 주요 행사의 중심 서적이자 주제로 활용된다.

투표 참여는 가칭)전주 독서대전 홈페이지(www.jbook.kr)에서 온라인 응모로 가능하며 시는 전주 책 축제를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행사 프로그램 아이디어도 수렴한다고 설명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경로당 기능보강 추진

전주시는 올 연말까지 총 3억 8000 만원을 투입해 '2018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한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모 계획을 수립하고 기능보강 사업 지원대상과 범위를 공개해 노후 경로당 개·보수 및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지원 및 이용편의 향상을 위한 장비 보강 등 각 경로당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조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 심의 후 경로당별로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채규남 기자



"기득권 나눠먹는 선거구 획정 규탄" 19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은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기득권 나눠먹는 선거구획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주시, 덕진소방서 앞 소방·응급차 출동로 확보

전주시가 소방차와 응급차가 골든타 임인 5분 이내로 화재·인명구조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긴급출동로를 확보한다.

시는 덕진소방서 앞 백제대로에 소방·응급차가 긴급 시에도 안전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덕진소방서의 협조요청에 따라 관련기관을 소집한 후 현장점검을 실시, 응급 출동로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에 착수했다.

우선, 출동로 구간의 안전한 공간 확보를 위해 출동로를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교통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 이에 따른 신호기 설치와 정차금지대 재정비를 추진했다.

동시에 차선도색과 유색포장(756㎡)을 실시해 차량의 피로 물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LED 문자전광판(2개소)을 설치해 운전자들에게 소방·응급차 진출입로 구간을 안내한다. /채규남 기자

'나를 위한 치유는 무엇인가?'

전주시, 4월 6일 첫 '열린 시민 독서토론' 일퍼센트 호텔에서

동네서점과 전주시청을 찾는 시민들의 휴식·독서공간인 전주책방이 시민들의 열린 독서토론 공간으로 활용된다.

전주시는 올해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문화의 집과 동네책방, 전주책방 등 열린 공간을 활용해 '열린 시민 독서토론'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세상 어디로든 통하는 문, 내 손의 책'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올해 열린 시민 독서토론은 오는 4월 6일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6월과 8월, 10월, 12월 등 짝수 달 둘째 주 금요일 오

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열린 공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한옥마을에서 가까운 흥서림 인근 '일퍼센트(1%) 호텔'에서 열리는 4월 첫 열린 시민 독서토론에서는 '나를 위한 치유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준비된 유인물을 함께 읽고 감상 구절을 정리하는 독서토론의 장이 펼쳐진다.

전주시립도서관은 이후 △삼천 문화의집(6월 8일) △두 권 책방(8월 10일) △조지오웰의 해안(10월 12일) △전주책방(12월 7일) 등 시민들이 일

상 속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고 동네서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네서점과 시청 로비 전주책방에서 독서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시민 독서토론에는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서동아리 리더들이 함께 참여해 토론 뿐 아니라 시 낭송과 북 콘서트 등도 선보인다.

열린 시민독서토론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세부 일정과 일정별 독서토론 주제 등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jon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규남 기자

동료 살해 후 시신 유기 50대 환경미화원 구속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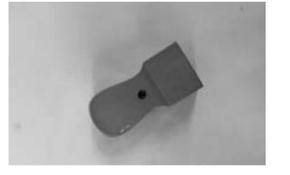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환경미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9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환경미화원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4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59)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A씨의 가방을 잡아당기며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난 A씨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살해한 다음 날인 5일 오후 6시께 B씨의 사체를 검정봉투에 담아 테이프로 봉인 한 후 오후 10시10분께 차량으로 자신이 쓰레기통을 수거하는 노선인 모 초교 앞 쓰레기장에 버려둔 뒤 그 다음날인 6일 오전 6시10분께 청소차를 인 6일 오전 6시10분께 청소차를 이용해 사체를 쓰레기 소각장에 유기했다.

경찰은 B가 연락을 받지 않아 가족들이 B씨를 가출 신고한 후 A씨가 수차례에 걸쳐 B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후 A씨에게 출석요구를 했지만



범행에 사용된 위조 직인

이에 불응하고 도주해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이용해 지난 17일 인천의 한 PC방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살해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기도 광명의 한 병원에서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구청에 B씨 명의의 휴직계를 제출하고 B씨의 딸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등 치밀하게 은폐하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채무관계를 고려해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면서 "살해 혐의가 확실한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기자

조카 돈 갚으라며 형수 살해한 70대 구속

자신이 조카에게 빌려 준 돈을 대신 갚으라며 형 부부를 찔러 형수를 숨지게 하고 집에 불을 지른 70대가 구속됐다.

19일 군산경찰서는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7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3시께 군산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친형 B(78)씨와 형수 C(75)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형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형수 C씨는 결국 숨지고, 형 B씨는 우측 턱을 찔려 심하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화재 연기를 흡입해 의식불명에 빠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조사결과 A씨는 조카에게 빌려준 2천만원을 형 부부에게 대신 갚으려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우발적인 범죄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월드컵 골프장 연장 운영 4시 41분~19시 30분까지

전주시실업공단은 월드컵 골프장을 연장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월드컵 골프장은 주간 시간대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들에게 평일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오전 4시 41분부터 오후 7시 30분으로 새벽 2분, 오후 30분을 연장한다.

전성환 전주실업공단 이사장은 "월드컵골프장이 도심 속 골프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 공공성을 실현하고 최대한의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